"실력을 갖춘 참된 의회"

2015년 나주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국외의정연수결과

2015. 5. 26. ~ 5. 30.(5일간) / 싱가포르



나주시의회

목 차

Ⅰ. 연수개요 ····· 3

1. 연 수 국 ····· 3
2. 연수목적 ····· 3
3. 연수개요 ····· 3
4. 세부 일정 ····· 4

Ⅱ. 싱가포르 기초 자료 ····· 6

Ⅲ. 연수 주요 활동 ····· 9

1. URA 갤러리 ····· 9
2. 노인요양원 ····· 14

Ⅳ. 그 밖의 주요 활동 ····· 18

Ⅴ. 연수 소감 ····· 19

국외의정연수 떠나며...



하나라도 더 배우고 익혀 미래나주에 필요한

희망의 별을 따오자!

나주시의회 의원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의정연수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해 새로운 정책대안을 연구하고, 의원 상호간 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생산적인 선진 의정을 구현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활동입니다.

의정연수를 단순히 즐기고 구경만 하고 오는 것이라고 여긴다면 그것은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낭비하는 그야말로 관광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뭔가를 하나라도 더 찾기 위한 열정으로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듣고, 입으로 물어봐서 그것을 내 경험과 지식으로 만들수만 있다면 그것은 의원 개개인적으로는 소중한 자산이며 우리 나주에는 미래의 발전된 나주를 건설하기 위한 희망의 별이 될 것이라 여깁니다.

아무쪼록 이번 연수를 통해 여러분 가슴에 별 하나씩은 꼭 품고 돌아오시기를 희망합니다.

2015년 5월 22일

나주시의회 의장 홍철식

Ⅰ. 연수 개요

연 수 국 : 싱가포르

연수목적

- 외국 선진사례의 벤치마킹을 통하여 국제마인드 함양
- 도시계발 및 노인복지정책 등 선진국의 발전된 사례 시찰 및 자료수집
- 고유문화 및 생활실태 탐방으로 견문확대를 통해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시정발전 및 시민행복의 질적 향상에 기여

연수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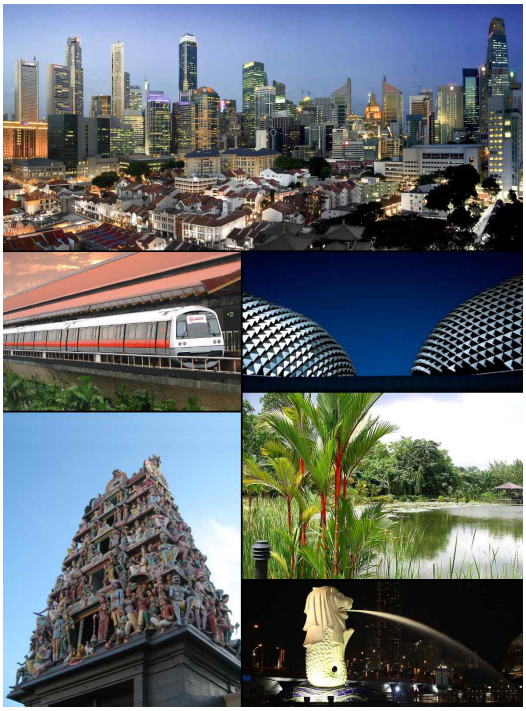
- 기　　간 : 2015. 5. 26.(화) ~ 5. 30.(토) / 3박 5일
- 대 상 자 : 나주시의회의원 및 사무국 직원

연 번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1	의 원	의 장	홍철식	단 장
2	의 원	의회운영위원장	김선용	부단장
3	의 원	총 무 위 원 장	윤정근	
4	의 원	경제안전건설위원장	조영두	
5	의 원	총 무 위 원	김용경	
6	의 원	경제안전건설위원	임성환	
7	의 원	총 무 위 원	김영덕	
8	의 원	총 무 위 원	김철수	
9	의 원	총 무 위 원	김노금	
10	의 원	경제안전건설위원	이동복	
11	직 원	사 무 국 장	김근용	
12	직 원	전 문 위 원	곽삼성	
13	직 원	의 사 팀 장	김용길	
14	직 원	주 무 관	오준열	
15	직 원	주 무 관	김형은	
16	직 원	주 무 관	이공봉	
17	직 원	주 무 관	방태주	

세부일정

일자	지 명	교 통	시 간	일 정	식 사
제1일 5/26 (화)	나 주 인 천 싱가폴	전용버스 OZ751 전용차량	08:00 13:00 16:10 21:30	나주출발 인천도착 인천 국제 공항 출발 / 싱가폴 향발 싱가폴 창이 국제공항 도착 후 호텔 투숙 및 휴식 HTL : 리버뷰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기준)	중:한정식 석:기내식 간 식
제2일 27 (수)	싱가폴 조호바루 싱가폴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 **조호바루-원주민마을, 술탄왕궁, 회교사원 시찰** ○ **공식방문-싱가폴 도시재개발국 갤러리 방문** -> URA 갤러리(싱가폴 도시형성과정 갤러리) ○ **동남아 최대 새공원 주롱새공원 시찰** 석식 후 호텔투숙 및 휴식 HTL :리버뷰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기준)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호텔식
제3일 28 (목)	싱가폴	전용버스	전 일	호텔 조식 후 ○ **도심 시민 편의시설(도심 내 공원) 시찰** -> 머라이언공원, 에스프레네이드 -> 가든 바이더베이, 클라우드 프레스트돔 호텔 투숙 및 휴식 HTL :리버뷰 호텔 또는 동급 (2인1실 기준)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4일 29 (금)	싱가폴	전용버스 OZ752	전 일 22:40	호텔 조식 후 ○ **공식방문 - 싱가폴 노인 치매병원(요양원) 방문** ○ **공식방문 – 센토사섬 관광휴양 공공시설 방문** 석식 후 공항으로 이동 싱가폴 출발 / 인천 향발	조:호텔식 중:현지식 석:현지식
제5일 30 (토)	인천 나주	전용버스	07:00 13:00	인천 도착 나주도착	조:기내식 중:한정식

Ⅱ. 싱가포르 기초자료

 싱가포르	기본	동남아시아, 말레이 반도 끝 섬나라 및 도시 국가
	면적	718.3㎢(서울의 1.18배)
	인구	약 547만명(서울의 절반 정도)
	경제 수준	2014년 기준으로 GDP US$ 3081억, 실질경제성장률 4.4%, 1인당 GDP US$ 56,319, 정부외채는 US$ 0, 외환보유고 US$ 2569억으로 세계 최정상권

우리나라와의 관계

우리나라는 1970년 12월 싱가포르에 통상경제대표부를 개설했다. 이 대표부는 1971년 7월 총영사관으로 승격되었다가 1975년 8월 대사관으로 승격됐다. 양국은 1972년 항공협정을 체결했다. 1979년 11월에는 이중과세방지협정이 체결되었다. 특히 건설업계의 교류가 활발한데 싱가포르의 창이국제공항을 비롯한 많은 주요 건물을 한국 건설업체가 건설하였다.

양국은 서로 10위권 내의 교역 상대국이며, 주로 전자전기제품, 기계류가 수출입 품목이며, 특히 1998년 외환 위기 이후 한국에의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 2000년에 정점을 이루다가 줄어들었으나 현재는 다시 늘어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의 대(對)싱가포르 수출은 152억4420만USD, 싱가포르의 우리나라 수출은 78억4953만USD(각 2010년)에 달하여, 싱가포르는 대한민국에 있어서 제5위의 수출국, 제14위의 수입국이다.

특히 싱가포르 투자청(GIC, Government of Singapore Investment Corporation)은 1999년 잠실 시그마타워, 2000년에는 프라임타워, 서울파이낸스타워, 무교빌딩, 코오롱빌딩 등의 대형 부동산을 매입했으며, 2005년에는 서울 역삼동의 45층짜리 스타타워빌딩을 매입하였다. 이러한 한국의 부동산 투자 과정에서 탈루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현재 한국인 선수들이 싱가포르 축구 리그에 진출해 있다.

자연환경

- **지리** : 63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말레이시아의 조호바루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데, 북쪽은 조호바루-싱가포르 코즈웨이를 통해, 서쪽은 투아스 제2 연결점에 연결되어 있다. 주롱 섬, 풀라 테콩, 풀라 우빈, 센토사가 주요 섬이며, 가장 높은 산은 부킷 티마 힐로 해발 166미터이다. 본섬의 중심에 위치한 싱가포르 강의 남쪽이 원래 도시의 발당이었으며 현재는 다운타운 코어로 불린다. 이전에 그 외 지역은 농장과 열대우림이었으나, 현재는 새로운 도시의 확장과 함께 거주와 쇼핑 그리고 산업단지로 바뀌었다.

- **기후** : 연중 고르게 아침 최저 23℃에서 낮 최고 32℃의 열대 우림 기후를 보인다. 연평균 강수량은 2343.1 mm 정도이며 11월에서 이듬해 1월까지 강수량이 많은 편이다.





경제현황

싱가포르의 경제정책은 국가에서 통제하는 권위주의식 자본주의이다. 2014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은 US$ 3081억$으로 43위의 해당하는 경제규모이며, 1인당 GDP는 US$ 56,3119$가 넘는 부유한 국가이다. 싱가포르는 고도로 발달된 시장기반 경제를 가지고 있으며, 역사적으로 수출입 무역에 의존하여 발달하여 왔다. 제조업도 발전한 편인데, 2005년 기준으로 국민총생산의 28%가 제조업으로부터 나왔다. 주요 생산품은 전자, 석유화학, 기계공학과 의약품 제조이다.

싱가포르는 런던, 뉴욕, 도쿄에 이은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외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사업가들에게 가장 친화적인 정책과 환경으로 평가 받고 있다. 홍콩, 대한민국, 중화민국과 함께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네 마리 용(NIEs)로 불리곤 한다.

싱가포르는 관광산업으로도 유명한데, 2013년에는 1천5백만 명의 관광객이 싱가포르를 방문했다. 싱가포르 정부는 2005년에는 관광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도박을 합법화시켰으며, 마리나 사우스와 센토사 섬에 새로운 테마파크를 세우는 계획을 하고 있다. 또한 싱가포르 음식 축제, 칭게이 축제 등의 관광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

2001년 아시아 외환위기 당시 GDP가 2.2% 떨어지는 어려움을 겪게되자 2001년 12월에 경제검토위원회(ERC, The Economic Review Committee)를 세우고 경제에 다시 활력을 심어주기 위한 정책수정을 제시하였으며, 이로부터 침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004년에는 8.3%, 2005년에는 6.4%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다.

현재까지 발견된 조사자료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정부는 상당히 효율적이고 청렴도가 높은 편이며 투명한 시장 경제를 지지하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1960년대부터 시작한 주택개발위원회에 의한 “플랫”(Flat)이라고 불리던 대규모 정부 공급 아파트 정책이나 경쟁력이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 유명하다. 미디어, 사회간접시설, 교통 등 대부분의 지역 경제는 정부 소유의 회사가 주도하고 있다.

한국의 부가가치세와 비슷한 싱가포르의 상품 및 서비스 세금(GST, Goods and Services Tax)는 1994년 4월 1일부터 3%로 부과되었다. 이를 통해 16억 달러의 정부재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GST는 2003년에는 4%로 2004년에는 5%로 인상되었으며, 2007년 7월 1일부터 7%로 인상되었다. 싱가포르의 고소득자 소득세율은 약 20%다.

무역상사, 건설회사, 해운회사 등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의 싱가포르 진출이 활발하며, 양국간 교역 규모는 2013년 기준 약 US$ 326 $에 달했으며, 2013년 기준 싱가포르는 한국의 5대 수출국이자 14대 수입국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Ⅲ. 연수 주요 활동

도시개발 정책 자료 수집활동 - 도시재개발국(URA) 갤러리 방문

- 도시재개발청(URA : Th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 운영

■ URA는 싱가포르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도시재개발기관으로써 싱가포르의 국가 토지계획을 담당하고 있다. 장기 전략적 계획뿐만 아니라, 물질적 발달에 대한 자세한 지역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며, 신중한 토지이용계획, 강력한 경제 성장과 사회응집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도시재개발정책 추진 전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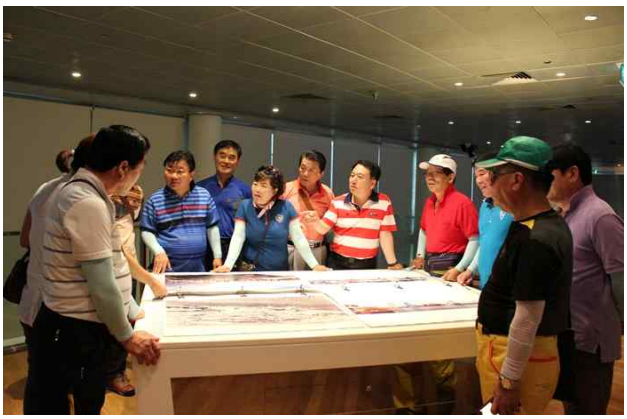
■ 친환경적이고 국제적인 비즈니스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는 빌딩의 제한고도 제도 도입, 산업단지, 가스시설 등 여러 시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며, 간척 사업을 통해 국토면적을 늘리기도 하였음.

■ Urban Renewal Department(URD)는 HDB의 산하기관으로 1967년 설립되어 중앙지역 개발의 주요 기관이 되며, 1974년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국가개발부)로 전환되었고, The Urban Redevelopment Authority(URA) 설립

■ 중심지역 재개발과 주거지역의 재개발을 담당하여 1967 ~ 1989년 사이에 184 ha를 정리, 조정, 판매(URA Sale of Sites Programme과 155가지 계획에 의하여)하였으며, 이 프로그램은 상업, 금융의 중심으로 하기 위함.

열정의 주요 장면








EWS
M ABOVE


Naturing
Ub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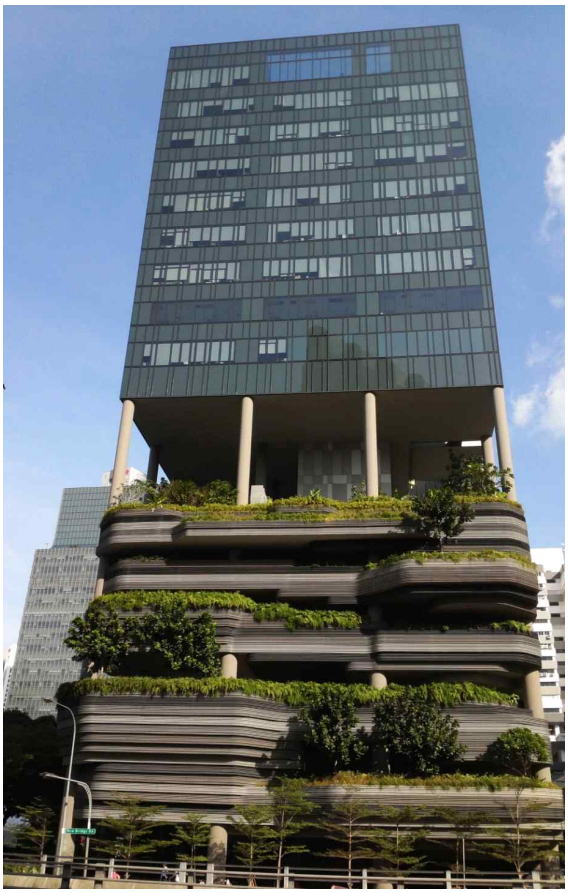

JURONG LAKE DISTRICT
A NEW LOOK AT THE RAIL CORRIDOR





싱가포르에서 본 나주의 미래

✓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도시녹화사업과 5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도시디자인)정책의 추진으로 도시 자체를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는 일에 도전하는 모범적이고 세계적으로 선구적인 선례가 될 수 있는 **도시 속의 자연! 미래를 품은 디자인도시**







〈도시녹화 사례 Ⅰ〉





〈도시녹화 사례 Ⅱ〉




<도심 디자인 사례 Ⅰ>




<도심 디자인 사례 Ⅱ>

- 싱가포르는 ‘정원 속의 도시(City in a garden)’를 표방하고 지난 20년간 꾸준히 크고 작은 공원들을 조성해왔으며, 그 중 핵심 프로젝트 가운데 하나가 SF영화 <아바타>를 연상시키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Gardens by the Bay)로서 잘 계획된 친환경생태 공원을 삭막한 도시환경에 창조해냄으로써 도심 속에 자연을 선물한 대표적인 사례임.

- 도시계획 정책의 키워드 : 계획(디자인), 생태학습, 자연, 휴식과 관광

희망의 별을 품다!

- 싱가포르는 아름다운 정원, 공원과 녹화로 보면 단연 선진국이다. 자연 속에서 도심의 생활을 즐길 수 있는 지금의 싱가포르는 전국민이 이루어낸 기적이 바로 〈CITY IN A GARDEN〉 프로젝트이다. 우리 나주의 혁신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연의 푸른 산·물빛이 가득한 명실상부한 빛가람도시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 조영두, 이동복 의원

- 싱가포르는 그 자체가 잘 계획된 도시시설과 계획으로 세계적인 도시상품이라는 점이다. 보존해야 할 곳과 철저히 개발해야 할 곳을 구분해 도심 속에 파크나 가든 같이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자연을 담아내고 철저히 보존하면서 새롭게 도시를 개발한 곳은 최근의 첨단기술이나 첨단공법을 다 이용하여 철저히 상품화 한다는 것이다. 우리 나주의 원도심 도시재생의 방향과 미래를 여기서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 - 임성환 의원

- 도시계획 정책의 키워드 (계획, 디자인, 생태학습, 자연, 휴식과 관광)에서 엿볼 수 있듯이 나주가 꿈꾸는 미래 혁신도시와 원도심의 도시계획정책 청사진을 그려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도시의 형성과 관리는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으며 장기적인 계획과 정책만이 품위 있는 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여기며 그런 비전이 우리 나주에 필요하지 않을까? 또한 그런 비전을 가진 지도자의 존재감이란 우리 나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 김선용 의원

노인복지 정책 자료 수집활동 – 노인요양시설 방문

싱가포르 보편적 복지정책의 실현

- 국가의 공적인 지원은 최소화 하고 노후연금, 의료비 보조, 주택자금지원, 사망 시 부양가족 보호 등 종합복지 기능을 개인과 고용주가 분담하여 월급에서 강제저축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에 필요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고 있음.

-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가진 모든 근로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사회복지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관리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은 싱가포르가 보편적 복지 실현을 목표로 복지 정책을 펼치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임.

- 정부는 노인복지정책의 원칙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 가족 단위의 노후 책임을 중시하며, 동양적 가치(유교)를 활용하여 추진하는데 연금제도,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등 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에도 적극 개입함.

- 재능기부와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한 교육과 복지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노인복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음.

열정의 주요 장면

















싱가포르에서 나주의 미래를 묻다!



복지는 국가정책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복지를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싱가포르에서는 노인복지 정책 수립에 어떠한 계층과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는가?

국가의 복지정책이 복지대상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경우는 실제로 복지시설들의 운영 프로그램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생각한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치매환자나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가?



✓ 싱가포르에서는....

- 싱가포르는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8%로 아시아에서도 빠른 속도로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 나라이며, 노령화사회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와 정책 수립을 위해 국가위원회, 정부부처, 노인단체, 학계 등 다양한 계층과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국가의 노인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 싱가포르 정부는 노인들이 집에서 거주하면서 병원과 집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보살핌을 받고 자기건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에 대한 개발에 나섰으며, 실버커뮤니티 시험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희망의 별을 품다!

- 복지는 국가정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복지예산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OECD에서 평가하는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은 중하위권으로 복지예산은 증가하지만 소득의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은 소득의 불균형은 국민행복지수를 오히려 떨어뜨린다.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증세없는 복지정책의 허상을 잘 보여주는 일이며 우리나라 국민 대다수의 복지 만족도가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는 생각이다. 국가가 잘 사는 나라가 좋은 나라인지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잘 사는 나라인지를 고민하게 되었으며 어쩌면 우리 나주 시민 행복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 김철수 의원

- 노인복지의 기본은 어른을 모시고 존경하는 기본적인 생각에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싱가포르에서도 노인복지정책의 원칙으로 국가가 아닌 개인, 가족 단위의 노후 책임을 중시하며, 동양적(유교적) 가치를 활용하여 노인 공경을 중시한다는 말을 듣고 느끼는 바가 크다. 물론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추진도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옛 우리 조상들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노인 공경에 대한 사상들이 사회적으로 의미가 많이 약해졌다는 생각이다. 그것을 우리 나주를 비롯해 우리나라에 다시 살려내는 일에 힘쓰겠다. - 김영덕 의원

- 『효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강력한 복지정책 추진도 감동을 받았지만 결국은 국민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기본이 무엇인지부터 출발해야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보다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먼저 보장되어야 한다고 여기며 그러한 정책이 우선되어야 함을 나의 의정활동의 기본으로 삼고자 한다. - 김용경 의원

Ⅲ. 그 밖의 연수 스케치











Ⅳ. 국외의정연수 소감...



이번 2015년 나주시의회 의원과 관계공무원 국외의정연수는 선진국가의 주요 정책의 운용실태 및 미래를 내다보는 도시계획 정책의 비교시찰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와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주 발전의 새로운 전략에 대한 지혜를 모으고자 5일간의 일정으로 다녀왔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 우리는 **'도시자체를 관광상품화 해낸 부자나라', '국민이 행복한 나라', '50년,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과 디자인', '국가의 전통사상적 가치와 복지'** 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들을 나주의 희망으로 엮어 내기 위해 우리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것을 느낌으로써 우리가 연수에 나섰던 목적을 이루는데 충실했음을 자부합니다. 이를 계기로 이후 의정활동에도 시민이 행복한 나주 건설을 위해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최선의 열정을 쏟아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